안전 굿! 펀드라이빙 굿! 보석같은 '알티마'

가성비 뛰어난 패밀리세단 알티마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안전 검증
빙판길·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인텔리전트시스템 충돌경고 사고예방

패밀리 세단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안전이다. 닛산 알티마는 언더스티어 컨트롤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을 갖춰, 수입 가솔린 중형 세단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가성비를 자랑한다. 사진제공 | 한국닛산

자동차

한 겨울을 무사히 보냈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쉬운 간절기다.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우선이다. 특히나 가족을 위한 패밀리 세단이라면 안전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수입 패밀리 세단을 찾고 있다면 닛산 알티마는 숨겨진 보석이다.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선정 '2016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를 획득하며 안전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또 경쟁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로 무장해 2016년 하반기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수입 가솔린 중형세단에서 판매 1위 모델로 등극,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두려움 없는 코너링, '액티브 언더 스티어 컨트롤' 시스템

자신의 한계 속도 이상으로 코너를 돌거나, 예상치 못한 도로 결빙 상황을 만나 앞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 현상은 전륜 구동차량의 특성 중 하나다. 알티마는 전륜 구동차량의 단점인 이 언더스티어 현상을 액티브 언더 스티어 컨트롤(Active Under-steer Control)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이 기술은 코너링 시 안쪽 앞 바퀴에 제동을 걸어 회전 축의 움직임을 높여 언더 스티어 현상으로 차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덕분에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이나, 눈이 녹아 젖어버린 노면,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중형 세단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펀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178마력을 발휘하는 2.5 모델만으로도 서킷 주행에서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변속충격이 없는 부드러운 가속감을 자랑하는 CV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도 알티마의 특징 중 하나다.

●안전 운전 돕는, 첨단 인텔리전트 시스템

첨단 사양 하나가 사고를 한 번 예방해 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도로 위 찰나의 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알티마의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알티마에는 앞 차와의 충돌 상황을 방지해주는 인텔리전트 전방 충돌 경고(Intelligent Forward Collision Warning)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전방 주행 차량과 그 앞 차량까지 계산해 상대적인 속도 및 거리를 파악해낸다.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Intelligent Emergency Braking)도 함께 장착되어 있다. 내장된 레이더 시스템 통해 앞 차와 간격이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제동을 가해 사고의 위험을 줄여준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CC, Intelligent Cruise Control) 시스템도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 감소와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시스템을 작동하면 자동으로 교통 흐름에 따라 앞 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외에도, 사각 지대에 위치한 물체를 감지해 경고등 및 경고음으로 위험을 인지시키는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고(Intelligent Blind Spot Intervention)와 차량 후진 시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Rear Cross Traffic Alert) 등 세심한 안전 사양이 장착되어 있다.

●알티마의 숨겨진 매력, '저중력 시트'

장거리 운전은 때로 노동이 된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닛산은 미항공우주국(NASA)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저중력 시트를 개발했다. 골반부터 가슴까지 신체의 중심을 단단히 지지하도록 설계돼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 장시간 주행에도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돕는다. 고급 가죽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더한 실내 좌석은 럼버 서포트(Lumber Support) 기능이 포함됐으며, 운전석 8방향, 조수석 4방향 조절이 가능하다. 암레스트가 구비된 뒷좌석 시트 또한 60/40 스플릿 폴딩이 가능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한편,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닛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사고수리 지원 캠페인'이 실시된다. 해당 기간 동안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운행 불가 상태의 사고 차량을 무상으로 견인받을 수 있고, 수리시 발생하는 보험사 자기부담금(면책금)의 50%(최대 25만원)와 차량 입고 후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경우 해당 비용 또한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닛산 알티마 주요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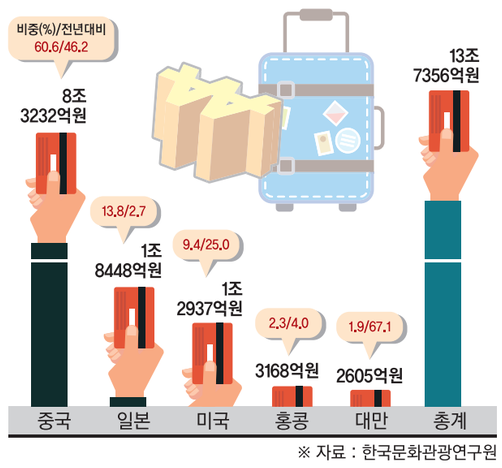
	2.5 SL	3.5 SL
배기량	2488cc	3498cc
연료	가솔린	가솔린
연비	13.3km/L	10.5km/L
변속기	자동 CVT	자동 CVT
최대출력	178마력	269마력
최대토크	24.5kg.m	34.6kg.m
가격	2990만, 3290만원	3480만, 3880만원

알티마 내부 모습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6 외국인신용카드 국내 지출액 TOP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신한카드사가 수집한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13조7356억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0.6%), 일본(13.8%), 미국(9.4%), 홍콩(2.3%) 순이었고 업종별로는 쇼핑(7조2308억원, 52.6%), 숙박(3조434억원, 22.2%), 음식(1조2471억원, 9.1%) 순이었다.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전면부 렌더링.

쏘나타 페이스리프트의 파격

스포티한 디자인 일부 공개…내달 초 출시

현대차 쏘나타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랜더링 이미지 상으로만 봐도 신차 수준의 변화다. 현대자동차는 26일 내달 초 출시 예정인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외장 렌더링을 공개했다. 이번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렌더링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대차는 지금까지 신차(풀체인지 모델)에 한해 출시 전에 렌더링을 공개해왔다. 그만큼 디자인 개선의 폭이 크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의미다.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 콘셉트는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다. 기존 쏘나타는 정제되고 간결함을 강조한 반면, 새로운 쏘나타는 볼륨감과 비례감 강조를 통해 보다 섬세한 아름다움을 구현해 젊은 감각의 중형세단으로 재탄생했다.

먼저 전면부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캐이딩 그릴'을 적용했으며, 그릴 중앙에 대형 현대자동차 로고를 배치해 젊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했다. 후면부는 번호판을 트렁크 도어에서 뒷범퍼로 옮겨 트렁크 도어 후면부를 하나의 심플한 면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 위에 대형 쏘나타 로고를 정중앙에 배치해 고급명차에서 볼 수 있는 후면부 스타일을 연출했다. 이와 같이 대폭 변화된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은 차세대 쏘나타 디자인의 기반이 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스포츠세단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된 만큼 203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4대보험·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카드로 결제하세요

'현금 지출을 대체하라'는 카드사의 특별 미션이 3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는 4대보험과 화물공제 분담금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몽호 KB국민카드 영업본부 상무(왼쪽)와 박응훈 화물공제조합 이사장이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카드 납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국민카드

공과금·월세 이어 납부서비스 확대
카드사 안정적 수익·충성고객 확보

금융

'현금 지출을 대체하라.'

카드업계 특별 미션이 3라운드에 돌입하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라운드였다면, 월세 등 생활 밀착형 대금이 2라운드 테마였다. 이제는 4대보험 자동이체와 화물공제 분담금 등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4대보험 자동이체 서비스는 그간 지역가입자로 한정되던 카드납부 자동이체 서비스를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를 통해 상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오는 7월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KB국민카드는 최근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카드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은 화물공제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및 위수탁차주 소유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 분담 처리하기 위해 납부하는 화물자동차 보험료다.

KB국민카드 측은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을 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 조합원과 위수탁차주의 납부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현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라운드로 명명되는 공과금 납부도 각종 이벤트로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BC카드가 3월31일까지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신규 고객 선착순 2만명에게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게 그 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정기적인 요금 납부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매출 창출원이라는 판단에서다. 매달 현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요금을 카드 결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주요 골자로, 매달 거래가 생기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인 데다 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성 시장을 개척하고 고정 고객을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카드사의 움직임"이라며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에 이어 보험 서비스까지 기존 현금으로 거래되던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17년 따뜻한 금융 고객패널'로 선발된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카드

디지털 서비스 고객패널 신설

신한카드, 상품 모니터링 등 고객 소통 확대

신한카드가 최근 서울 남대문로 알로프트 호텔에서 '2017년 따뜻한 금융 고객패널' 발대식을 열었다.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의 제도·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전사 전략 방향인 'DT 드라이브'(디지털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데이터 기술 시대의 선도)에 맞게 기존 서포터즈 패널과 별도로 DT패널을 신설했다.

서포터즈 패널은 신한카드 전체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언을 하게 되며, DT패널은 디지털 신기술 접목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 및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해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신한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그린카드로 친환경 식품 사면 추가 할인"

BC카드, 농산물까지 할인 확대

BC카드가 그린카드 혜택 확대를 통한 친환경 소비에 앞장선다.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BC그린카드는 전기·통신·아파트관리비 등 생활요금 자동이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친환경 식품·엔진 세정제 등을 구매할 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BC카드 고객들은 공산품 위주의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제공받던 추가 할인을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에도 받을 수 있다.

채종진 BC카드 영업총괄부문장은 "BC그린카드는 출시 6년여가 경과한 현재 약 1500만명 고객이 발급 받는 등 친환경 경제생활의 필수품"이라며 "향후 다양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그린카드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경제 생태계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